

치 사

一微塵中含十方입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한 톨의 배추 씨앗에 온 우주 생명에게 기쁨과 자비를 나누려는 소망이 가득 담겼습니다. 묵정밭을 갈아 생태농장으로 만든 원력이 자비의 김장으로 회향되어 화엄 법계의 중중무진한 연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야단법석의 법주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의 제26대 주지이신 설담원혜스님 입니다. 개혁종단의 초대 포교부장으로 종단 포교의 백년대계를 세우시고, 봉은사 주지로 계실 적에는 도량을 여법하게 정비하여 전통사찰 가람불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理事에 두루 원만한 주지 스님이 6교구 마곡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대하는 바가 사뭇 큼니다.

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불자는 물론 종교를 뛰어넘어 시청과 경찰서 등 지역의 일꾼들이 팔을 걷어붙여 희망의 연대, 자비의 법석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널리 퍼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란한 진산식을 따로 올리지 않는 대신, 김장과 지역 쌀을 나누는 자비 한 마당을 펼친 마곡사 사부대중의 큰 뜻에는 자비와 봉사의 짙은 향기가 피어납니다. 태화산을 넘어 충청도 전역으로 널리 퍼지는 향기로운 진산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세계사적 격변 속에서 경제위기, 계층과 지역간의 갈등, 사회 혼란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곡사의 이번 자비배추 김장 나눔 행사는 지역민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 함으로써 소통하고, 자비를 나눔으로써 화합하는 불교적 소통과 화합의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과 소임자,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